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12권 1호 pp. 141~161, 2002.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12 No.1 pp. 141~161, 2002
University of Ulsan.

예술을 통해 새롭게 조명해 보는 행정학 : 영화장르를 중심으로*

이병철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통해 예술과 행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특히 예술부문 중 영화와 행정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보다 색다른 시각에서 영화를 통하여 본 행정현상의 이해와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영화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그려지는 여러 가지 행정현상들이 영화 밖의 실제세계의 행정현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또 영화라는 가상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론들이 실제 행정학에 어떠한 시사점과 행정적 함의를 부여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Ideas and Illuminations for Public Administration from Film

Lee, Byung-Chul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ideas and illuminations connection between the film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provide concrete examples that will encourage a more heavily traversed set of connection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films. In so doing process, administrators can not only learn more deeply about themselves and their organizations but also receive stimulation from new ideas, new illuminations,

* 이 논문은 2001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new symbols. This study alludes that the films can enrich public administration.

Ⅰ. 글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예술은 행정문제에 새로운 빛을 비춤으로써 그 조명(illumination)에 의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인간정신의 발현을 통한 영감(inspiration)의 발로를 통해 행정에 기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과 사회의 복잡다기성이 증대되고 이를 둘러싼 환경이 보다 다원화되고 심화되어짐에 따라 보다 넓은 시야의 학문관이 필요로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행정학을 위시한 학문적 움직임은 협소한 과학적 한계성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은 세계, 다시 말하자면 예술들을 포함하는 총체적 영역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술은 실제 행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또한 가상적 행정현상도 우리에게 시사해 줌으로써 실제 행정의 실험의 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근자에 들어 이미 예술분야 중에서 문학부문이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주도하였던 왈도(Dwight Waldo)는 행정현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거꾸로 볼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1] 그는 잔을 거꾸로 들어 보듯이(reversing the glass) 우리도 현상을 기존의 관념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킹돈(John W. Kingdon)이 제시한 '정책의 창'이란 개념[2]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예술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행정현상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예의 관찰함으로써 다른 접근방법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생각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행정학을 하나의 과학적 학문만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고유의 행정학의 영역만을 고집하고 이에 안주하려는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 보다 다학문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으로의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존 관념상으로는 행정학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예술과 행정학과의 만남의 장을 학문적 차원에서 고려해 봄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통해 예술과 행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특히 예술부문 중 영화와 행정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통하여 본 행정현상의 이해와 설명을 보다 색다른 시각에서 설정·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영화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그려지는 여러 가지 행정현상들이 영화밖의 실제세계의 행정현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또 가상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론들이 실제 행정학에 어떠한 시사점과 행정적 함의를 부여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개념과 이론분야의 체계화와 정리를 위해

1) Dwight Waldo, *Perspectives on Administration* (University, Alabama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56), ch.1.

2) John W. Kingdon, *Agenda,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y* (Boston, Mass.: Little, Brown, 1984 & 1995), pp.205-218.

기존의 관련문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론 27편의 영화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의 대상이 된 영화는 한국영화로는 '투캅스'와 '주유소습격사건', 그리고 '공공의 적' 3편이고 외국영화로는 '나쁜 녀석들'(Bad Guys), '머니트레인'(Money train), 'LA 컨피덴셜'(L.A. '네트'(The Net), Confidential), '트레이닝 데이'(Training Day), '피스메이커'(The Peacemaker), '인사이더'(The Insider), '의뢰인'(The Client), '펠리칸 브리프'(The Pelican Brief), '이레이저'(Eraser),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Rules of Engagement), '어 퓨 굿맨'(A Few Goodmen), '아웃브레이크'(Outbreak), '더 록'(The Rock), '데이브'(Dave), '절대권력'(Absolute Power), '긴급명령'(Clear and Present Danger), '리플레이스먼트'(Replacement), '실종'(Frantic), '도망자'(The Fugitive), '13일'(Thirteendays),'에니미 오브 더 스테이트'(enemy of the state), '에어포스 원'(Air Force One), 그리고 '인디펜던스 데이'(Independence Day) 등 24편으로 총 27편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Ⅱ. 문학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행정학적 조명

어떻게 예술이 행정학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근자에 들어 제기되고 있다.

왈도(Dwight Waldo)가 이러한 관점에서 최초의 연구를 시작한 이래 많은 후속적 연구들이 양산되어 오고 있다. 물론 왈도 이전에도 행정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써 행정소설 등이 언급되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1924년 볼프(Humbert Wolfe)가 쓴 "소설 속에 나오는 몇몇 공직자들"이라는 논문에서 볼프는 어떻게 공직자들이 영국소설에 묘사되고 있는가를 검증한 바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공직자의 유형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공직자 유형(mandarin-cum-parasite)과 관료제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공직자 유형이 그것이다.[3)]

미국에서 행정소설에 대한 논의는 1940년대 미국행정학지(PAR)에서 시리즈로 소설평론을 다룬 데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에거(Rowland Egger)나 베일리(Stephen Bailey) 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이 평론가가 되어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과격하고 진보적인 방법으로 소설이 행정학전문서적보다 더 행정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특히 베일리는 만화가나 소설가, 시인 등과 같은 예술인들이 정치학자나 행정가들보다 더 정치나 행정상황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예리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4)]

이러한 여러 노력들이 있긴 하였으나 처음으로 탐구적 주제로 하여 행정소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시도한 학자는 앞에서 잠시 논의했듯이 왈도였다. 1956년에 집필한 『행정에 대한 전망』이란 책에서 그는 정부의 일상적 삶을 문학적으로 다룬 것이 독자들에게 행정세계에 대한 깊은 가치 있는 통찰력과 전문서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5)]

---

3) Humbert Wolfe, "Some Public Servants in Fiction," *Public Administration*, Vol. 2 (January 1924), pp. 39-57.

4) Charles T. Goodsell and Nancy Murray (eds.), *Public Administration Illuminated and Inspired by The Arts* (Westport, Connecticut : Praeger Publishers, 1995), pp.8-9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전문서적을 대체하거나 무력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보조 원천자료로 소설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물론 이러한 그의 생각은 12년 후에도 다시 재천명이 된다.

행정현상을 이해하려는 도구로써 소설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논리실증주의의 전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데 대해 반대의사를 지닌 에거는 행정소설이 행태주의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적 사회탐구를 가능케 해주는 방안으로써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을 하였고 맥커디(Howard McCurdy)도 소설이 소멸되어가고 있는 실증주의를 대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동조하면서 맥다니엘(Thomas McDaniel) 역시 행정소설이 행정의 필수적인 주관적 과정에서 의미를 도출해 내는 유용한 방법을 통해 행정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연구의 영역이 주로 소설을 위시한 문학적 영역(literature)으로만 국한되어 왔으나 근자에 들어와서는 이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즉 과학의 진보와 이에 따른 표현매체의 다양화와 첨단화에 힘입어 보다 다양하고 첨단적인 영역에까지 연구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영화, 드라마, 시, 고전문학, 영상예술, 그리고 심미이론분야까지 연구의 대상과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예술은 행정문제에 새로운 빛을 비춤으로써 그 조명(illumination)에 의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인간정신의 발현을 통한 영감(inspiration)의 발로를 통해 행정에 기여하고 있다.[6]

행정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경험적 검증을 보다 완벽하게 완성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술이고 심미적 접근이라고 듀이와 쿠퍼는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과학적 검증에 부가하여 예술과 심미적 접근이 가미될 때 행정현상에 대한 보다 완벽한 경험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듀이(John Dewey)는 예술을 대상과 일상적 경험의 감각으로부터 분리 할 것을 강요하는 전통적 예술관에 반대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은 내용 면에서 예술적이며 심미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7]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쿠퍼(Joseph H. Kupfer) 역시 일상생활의 경험들이 심미적 성질과 관계로 채워지는 그 한도 내에서 그것들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8]고 주장을 한다. 이러한 맥락을 같이하면서 전종섭도 개인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주의적 맹점과 소외감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경험의 장소에서 심미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9]고 주장을 한다.

이와 같이 행정에 대해 보다 앞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직과 사회의 복잡다기성이 증대되고 이를 둘러싼 환경이 보다 다원화되고 심화되어짐에 따라 예술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시야의 전향적 학문관이 행정학에도 필요로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행정학을 위시한 학문적 움직임은 협소한 과학적 한계성

---

5) Dwight Waldo, *Perspectives on Administration* (University, Alabama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56), Ch.4.

6) Guy B. Adams, "The Wheel of Fortune : Middle Ages, Not TV", Book Reviews 1,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6, No. 2, March/April 1996, p.207.

7) John Dewey, *Art as Experience* (New York : Minton, Balch and Company, 1934), p.6.

8) Joseph H. Kupfer, *Experience as Art : Aesthetics in Everyday Life* (Albany, 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3), p.3.

9) 전종섭(저), 윤재풍 · 정희남(역), 『행정철학』(서울 : 대영문화사, 2001), 223쪽.

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은 세계 다시 말하자면 예술들을 포함하는 총체적 영역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행정학과 예술과의 학문적 접목

1. 예술이 행정학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

굳셀(Charles T. Goodsell)[10]과 머레이(Nancy Murray)[11]는 '새로운 교량'이라는 개념적 틀을 통해 기존의 행정영역과 예술로부터 온 개념들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다.[12]

그들은 예술이 행정학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를 네 가지로 집약하여 설명하고 있다.[13]

첫째, 소설이나 단편, 영화, 드라마, 시, 고전문학, 시각예술 그리고 심미주의 이론 등이 행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잠재적으로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둘째,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성질로 인해 행정은 보다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현실은 보다 새로운 개념적 영역의 확장과 이를 통한 지식영역의 확대적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에 예술을 적용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예술을 통해 행정이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제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술이 행정에 기여할 때가 되었다는 시대적 인식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 기존의 행정학연구의 주요한 학문적 기여가 행정학분야 그 자체에서만 나왔고 또한 행정학자들의 시각이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치적 합리성과 같은 것에 국한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술학자들의 통찰력이 무엇인가 행정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학제간 연구의 시너지적 상승효과를 행정의 연구에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난 세기의 실증주의적 사조의 진전으로 인해 사회현상을 컴파트먼트식으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반동으로 30여 년 전에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가 새롭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아직도 엄격하고 정교하게 계량화된 연구방법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14]

이러한 연유로 하여 다양한 학문적 분야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되어 정확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과학적 학문성을 과시하고 있지만 학문간의 교호성의 실현은 아직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사실 이러한 점이 고도의 엄밀성과 정확성을 지닌 행정이론들이 행정실무자들에게 어필되지 못하고 그들을 좌절시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 교호성을 실현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교량이

10) 굳셀은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Blacksburg)에 있는 "버지니아폴리테크(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의 "행정·정책센터(Center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1) 머레이는 뉴욕주 화이트프레인즈(White Plains)에 있는 페이스대학(Pace University)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2) Charles T. Goodsell and Nancy Murray (eds.), *op. cit.*, pp.3-8.

13) *Ibid*, pp.ix-xi.

14) Guy B. Adams, *op. cit.*, p.207.

그들 사이에 놓여져야 하는 것이다.

2. 행정과 예술을 이어줄 새로운 교량

굳셀과 머레이는 이러한 관점에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행정과 예술을 이어줄 새로운 교량으로 다섯 가지의 다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이론의 다리(theory bridge)이고 둘째가 가치의 다리(values bridge) 셋째가 리더십의 다리(leadership bridge) 넷째가 가르침의 다리(teaching brid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의 가르침의 다리와 함께 결합된 정책의 다리(policy bridge)가 그것이다.[15]

그리고 이러한 다섯 가지 교량들을 호머(Homer)가 쓴 "오딧세이(The Odyssey)"와 텔레비젼 영화용으로 제작된 "행운의 바퀴(The Wheel of Fortune)" 그리고 영화 "별들의 전쟁(Star Wars)"에 직접 접목시켜 사용하여 가치 있는 조명을 하고 있다.

행정과 예술과의 괴리를 메우고 이 둘을 연계 짓기 위한 다섯 개의 개념적 다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굳셀과 머레이의 표현을 빌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의 다리는 예술분야에서 예를 든다면 심미주의이론이나 철학 등에서 이루어진 이론의 개발이 행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예술분야에서의 이론개발은 유추를 통해 행정의 실제사안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16]

둘째, 가치의 다리는 관료제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이런 가치의 다리의 기초는 이미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시도한 사람들에 의해 놓여졌었다. 수십 년 전에 많은 학자들이 행정의 연구는 소설 등을 읽음으로써 보다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왔었다. 그들은 행정을 주제로 한 소설 등은 행정학 교과서나 강의실에서 일상적으로 얻을 수 없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실 소설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권력이나 야심, 생존, 보살핌, 비전과 같은 가치적 규범이 개재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소설을 비롯한 문학은 행정의 가치를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현시(顯示)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17]

셋째, 리더십의 다리는 개인으로서의 지도자의 정념(情念)과 인간적 자질을 예술적 묘사를 통해 (물론 그 수단들은 문학, 영화, 비디오 등 다양할 것임) 더욱 생생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지도자들이 일상업무에서 부딪치는 딜레마나 여러 가지 긴장들을 보다 깊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것도 행정과 관련 지워 쓰여진 소설의 또 다른 기여인 것이다. 사실 조직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조직을 보는 눈을 더욱 넓혀주게 되는 것이고 지도자들 자신들에겐 자기반성과 검증을 하게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다.[18]

넷째, 가르침의 다리는 실제로 가르침을 행하는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행정실무자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이다. 그 이유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큰 능력을 갖고자하는 열망을 심어주는데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15) Charles T. Goodsell and Nancy Murray (eds.), *op. cit.*, pp.11-21.
16) *Ibid.*, p.6.
17) *Ibid.*, p.6.
18) *Ibid.*, p.6-7.

행정과 관련된 소설에서 이러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터득한 자들은 행정과정의 미묘함을 행정의 문외한인 학생들에게 전수시키는데 있어 무미건조한 교실보다는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사실 이러한 배움의 매체에 있어서의 선명성과 구체성은 전통적인 교육방법을 지지해 나가는데도 도움을 주는 일면 보다 나은 혁신을 낳는데도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제기되는 유일한 문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어떻게 가장 적절한 소재를 찾아서 이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상상력 있게 이를 제시하고 전달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19]

다섯째, 정책의 다리는 행정의 정책산출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민주과정을 통해 결과된 정책산출은 세속적인 영향력의 산물로 생각해서 예술의 유미적인 영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예술은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내세우는 전략과는 무관한 듯 보이고 또 이익집단의 로비나 전문가집단에 의한 합리적 분석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은 보다 광범위한 대중성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영향력이란 여러 가지 생각들의 흐름을 통제하고 미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조(思潮)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그 시대를 관류하는 대중문화나 예술의 성격 그리고 흐름과 결코 무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서부를 아름답게 채색한 예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의 이주를 결심케 하였으며 국립공원의 생성을 자극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공상과학소설의 인기는 우주탐험[20]이나 첨단 전략·전술무기[21]의 개발무대를 제공하고 이를 가속시키는 영향력을 행사케 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는 이와 관련된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22]

겉으로 보기엔 행정과 예술이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굳셀과 머레이가 제시한 다섯 개의 다리를 통해 연결을 시켜보면 그러한 시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행정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예술분야에 대한 기여와 관련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여러 예들을 열거해 보았지만 또 다른 예 하나를 더 들어 본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종전의 사고와 명백히 다른 또 다른 사고의 한 일면을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즉 지역사회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소설이나 예술부문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다는 예이다.

14세기 이탈리아의 문호였던 단테(Alighieri Dante)가 쓴 '신곡'(Divina Commedia)의 제1부인 '지옥'편(the Inferno)[23]에서 그 예를 들어보자. 깊은 지옥으로의 여행에 있어 인간의 원죄(原罪)는 상대적으로 얕은 지옥에 놓여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개인에 대해 저질러진 범죄는 상대적으로 얕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태롭게 한 범죄는 아홉 개 지옥 중에서 가장 깊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다는 것이다.

---

19) *Ibid.*, p.7.

20) 쥴 베르너(Jules Verne)는 "달세계 여행"이라는 소설을 통해 로켓개발을 예견하였다.

21) 이러한 예 중 하나로 원자력 잠수함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쥴 베르너(Jules Verne)의 소설에 나오는 노틸러스호의 능력을 현실에서 이루게 함으로써 잠수함 개발자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22) *op. cit.*, p.7.

23) Alighieri, Dante, *L'Inferno* (New York : Penguine Books, 1949 ; orig c. 1315).

사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을 해 본적이 별로 없을 것이다. 행정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혁신을 꾀하고자 할 때 또는 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훨씬 행정에 대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예술과 문학들은 풍부한 발상의 전환을 하기 위한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학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고 다루어지고 있는 관료제에 대해서도 이를 영화를 통해 투영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것도 이러한 예술을 통한 하나의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홀쯔(Marc Holzer)와 슬레터(Linda G. Slater)는 실제로 영화를 통해 관료제안에 내재되어 있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s)적 현상을 잘 적시해 드러내고 있다.[24] 또한 애덤스(Elsie B. Adams)나 마리니(Frank Marini), 그리고 크롤(Morton Kroll)도 영화 등을 통해 예술에서 나타난 관료제의 여러 가치들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25]

Ⅳ. 영화를 통해 새롭게 조명해 보는 행정학

본 연구에서 행정의 연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는 영화를 통해 행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미 앞 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가 된 영화가 행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잠재적으로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행정학의 적용영역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성질로 인해 행정은 보다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현실은 보다 새로운 개념적 영역의 확장과 이를 통한 지식영역의 확대적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에 예술을 적용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예술을 통해 행정이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제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술이 행정에 기여할 때가 되었다는 시대적 인식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 기존의 행정학연구의 주요한 학문적 기여가 행정학분야 그 자체에서만 나왔고 또한 행정학자들의 시각이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치적 합리성과 같은 것에 국한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술학자들의 통찰력이 무엇인가 행정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학제간 연구의 시너지적 상승효과를 행정의 연구에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난 세기의 실증주의적 사조의 진전으로 인해 사회현상을 컴파트먼트식으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반동으로 30여 년 전에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가 새롭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아직도 엄격하고 정교하게 계량화된 연구방법들이 상당한 영향

24) Marc Holzer and Linda G. Slater, "Insights into Bureaucracy from Film : Visualizing Stereotypes" in Charles T. Goodsell and Nancy Murray (eds.), *op. cit.*, pp.75-90.

25) Elsie B. Adams and Frank Marini, "Regimentation and Rebellion in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in *Ibid.*, pp.59-74. ; Morton Kroll, "The Administrator-Viewer Reviewed, Through Film", in *Ibid.*, pp.91-106.

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림이 완벽한 학문적 연구를 위해 절대적일 수 없다면 분명히 이를 균형잡아 주어야 할 그 어떤 노력이 필요로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예술을 통한 행정현상의 이해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예술분야 중 영화를 선택하여 실제 행정현상에서 쉽게 실현시키기 어려운 실험적 상황을 재현시키고 이 속에서 보다 적나라한 행정이론들의 응용적 적용의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증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행정현상과 연관되는 영화들을 차별화 되는 특성별로 나누어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관료조직의 부패나 부조리, 내부고발자문제 그리고 증인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를 고발하는 범주가 그 하나이고 관료조직의 음모와 갈등이 또 다른 하나이며, 이 외에 관료조직의 스테레오타입 한 타성적 업무행태나 또는 조직적 편견을 나타내는 범주가 그 다른 하나이다.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그릇된 관료조직과 이러한 관료조직을 악용하는 범죄조직의 리바이던적 역기능을 그려내려는 범주와 대통령직의 유고 시나 위기 시 상정될 수 있는 관료적 위기관리시스템과 대통령의 리더십을 그린 범주 등으로 분류하였다.

1. 관료조직의 부패나 부조리상, 내부고발자 그리고 증인보호

관료조직의 부패나 부조리상을 극적으로 잘 시사해 주는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한국영화로는 '투캅스'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강우석 감독이 제작을 하였으며 안성기, 박중훈, 지수원 등이 출연하는 영화로 부패한 경찰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성기는 고참 형사로서 신참형사인 박중훈과 같은 파트너가 되어 온갖 사건에 끼어들면서 온갖 비리와 부패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영화는 경찰의 비리상을 다각적으로 투영하고 이러한 비리가 바로 시민 곁에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동기가 맞아 떨어졌는지 많은 공감을 얻었고 그 결과 '투캅스2' 그리고 1998년에 개봉한 김상진감독의 '투캅스3'가 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강우석 감독에 의해 2002년에 개봉된 '공공의 적' 역시 앞의 투캅스와 같이 비리경찰상을 잘 투영해 주고 있다. 압수한 마약을 빼돌려 한 몫을 챙기려 하고 온갖 저질적 행동을 통해 악질형사로 명성을 날리는 강철중(설경구 배역)을 통해 이 영화는 경찰이라는 관료조직의 일그러진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철중보다 악행에 있어 한 수 더 위인 패륜아 펀드매니저 조규환 (이성재 배역)을 뒤쫓는 철중의 니전투구적 사투과정을 통해 경찰조직의 비합리성과 폭력성을 간접 투영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영화로는 '주유소습격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김상진감독에 의해 1999년에 출시된 영화로 주유소를 거쳐가는 공짜 좋아하는 경찰상을 잘 투영해 주고 있다.

외국영화로써 미국판 투캅스라고 할 수 있는 안톤 후쿠아(Antoine Fuqua)감독이 2001년 출시한 '트레이닝 데이' 역시 LA 경찰청 13년 경력의 베테랑 마약 수사관, 알론조 해리스 경관(덴젤 워싱턴(Denzel Washington) 배역)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면서 필요악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걸 합리화 하는 부패한 경찰상을 잘 묘사해 내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적 그리고 인간적 연계를 통해 부패한 경찰문화에 물들어 가는 알론조 밑에 새로 들어온 신참 제이크 호이트(에단 호크(Ethan Hawke) 배역)의 갈등과정을 통해 그릇된 거대 관료조직문화와 행태의 무거운 압력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주제로 구성된 외국영화로는 '나쁜 녀석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마이클 베이 감독에 의해 1995년에 제작 출시되었으며 윌 스미스와 마틴 로렌스가 형사로 출연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것이 주된 메시지이기는 하나 이들이 저지르는 그릇된 경찰상은 우리에게 경종을 던져 줄 만한 것이다.

또한 죠셉 루벤이 감독으로 1996년에 제작 출시한 '머니트레인'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웨슬리 스나입스, 우디 해럴슨,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가 출연하는 이 영화는 경찰이 관련 업무에 있어 언제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찰리(우디 해럴슨이 배역)가 지하철 경비를 맡고 있는 직분을 망각하고 지하철을 운행하는 머니트레인 안에 든 현금들을 탈취하려는 행동 등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는 찰리의 도박중독중과 머니 트레인의 현금 탈취를 통해 경찰도 시민의 지팡이 이기 이전에 범죄조직과의 야합이나 개인적 사리사욕을 취할 수도 있는 나약하고 추한 얼굴을 한 인간이라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경찰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얼굴 즉 경찰의 어두운 일면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또한 경찰이 잘못된 생각을 통해 그릇된 짓을 실제로 행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시민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영화는 잘 전달하고 있다.

커티스 핸슨 (Curtis Hanson)감독에 의해 1997년에 제작 출시된 'LA 컨피덴셜'[26] 역시 이 점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러셀 크로우, 가이 피어스, 케빈 스페이시, 킴 베신져, 그리고 제임스 크로웰 등이 출연하는 이 영화는 돈과 마약 그리고 매춘을 매개로 형성되는 경찰과 언론, 언론과 마피아, 마피아와 경찰의 부패고리의 진면목을 잘 표현해 내고 있다. 출세를 위해선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신참형사 에드(가이 피어스 배역), 옳은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정의파 형사 버드(러셀 크로우 배역), 그리고 처세에 능한 노련한 형사 잭(케빈 스페이시 배역) 세 사람이 거대한 경찰, 언론 등 관료조직과 범죄조직에 맞서 벌이는 승부수는 살인, 음모, 배신, 로맨스가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추악한 일 면들을 들추어내고 있다.

미디 레더 감독이 1997년에 제작 출시하고 조지 클루니와 니콜 키드먼이 주연을 맡은 '피스메이커' 역시 군으로 대변되는 관료조직의 부패상을 테러리스트조직에게 핵탄두를 팔아먹으려는 타락한 소련의 군장성을 통해 잘 표현해 내고 있다.

특히 부패한 조직에 맞서 싸우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문제를 다룬 역작 '인사이더'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78년 미국에서 제정된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은 정부나 대기업의 비밀을 폭로한 사람들을 보복, 강등,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기 위한 법률로써 핵이나 유독화학물질저장소의 폐기물 무단 및 비밀방류나 중요 이권이 걸린 정책결정에 정치적 외압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조직의 개입에 의한 불법로비 그리고 국방부의 무기예산의 과다지출 등 업무의 성격상 내부고발이 없이는 그 실체를 정확히 적출해 내기 어려운 비리들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이다.

마이클 맨(Michael Mann)이 감독을 맡고 1999년에 제작 출시된 이 영화는 이러한 내부고발자문제를 실화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담배회사(실명은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사'(Brown & Williamson Tobacco Corp.))의 비리[27]를 폭로하는 담배회사 연구직원

---

26) 제임스 엘로이(James Ellroy)의 복잡한 원작 'LA 범죄 소설 3부작'을 시나리오 작가 브라이언 헬겔란드와 커티스 핸슨 감독이 공동으로 각색하여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했다. '컨피덴셜'은 50년대를 풍미한 대중 통속 잡지의 이름이다.

27) 니코틴을 인체 내에서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배제조과정에 유해 화학물질을 첨가시키고 이 화학물질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담배중독에 빠지는 일면 화학물질로 인해 뇌와 중추신경계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은닉하는 비리를 말한다. 또한 이것이 문제화되어 담배회사 사장이 청문회에 나가지만 그

와이겐드(Jeffrey Wigand : 러셀 크로우(Russell Crowe) 배역)는 년봉 400,000달러를 받는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사 연구개발담당부사장(vice presiden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으로 있다가 내부고발사건으로 해임되고 생활을 위해 년봉 30,400달러를 받는 루이스빌(Louisville) 소재의 고등학교(duPont Manual High School) 과학교사로 자리를 바꾸는 위기를 스스로 감내하는 실존 인물과 담배회사간의 갈등과 마찰을 박진감과 현실감 있게 잘 그려내고 있다. 특히 담배회사에서 채용 시 계약조건으로 서명한 회사 내에서 지득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어 이를 위반할 시는 사법처리 하겠다고 내부고발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내용은 거대한 관료조직과 그에 맞서는 왜소한 한 인간의 대결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내고 있다.

그리고 언론매체(실명은 CBS)에서는 특종감으로 이런 내부고발사실을 기사화 하려고 하나 법률고문단의 반대[28]에 직면 언론매체의 중역들은 언론기관의 생존과 이익 그리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 이러한 법률고문단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홀로 맞서 싸우는 한 "추적60분(60 Minutes)" 담담 PD 로웰(Lowell Bergman ; 알파치노(Al Pacino) 배역)의 행위는 오늘의 거대한 관료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낳게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영화는 부도덕한 기업과 언론기관으로서의 사명에 앞서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언론의 책무를 져버리고자 하는 얄팍한 상혼에 빠진 언론기관에 대한 경종과 내부고발자의 어려움과 고뇌 그리고 거대한 관료조직의 이익 앞에 굴하지 않고 버티는 한 양심언론인의 투혼을 통해 과연 정의의 실현이 실제 현실사회에서 얼마나 얻어내기 어려운 것인가를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거대관료조직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비굴하고 부패해 질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이러한 거미줄처럼 얽힌 이익과 인간관계의 실타래 속에서 한 인간의 올바름으로 나아가려는 분투가 얼마나 힘겨운가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부고발자문제와 연관 지워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증인보호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형사재판의 유력한 증인이 증언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위험을 피해 신분을 숨기고 안전한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영화화 한 것으로는 조엘 슈마허감독이 1994년 제작 출시한 존 그리샴(John Grisham)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극화한 '의뢰인'이라는 영화와 알렌 파쿠라(Alan J. Pakula)감독이 1993년에 제작출시한 줄리아 로버츠(Julia Roberts)주연의 '펠리칸 브리프', 그리고 척 러셀감독이 1996년 제작 출시한 아놀드 슈워제네거주연의 '이레이저' 등이 있다. 이레이저에서 증인보호 프로그램 전문가인 존(아놀드 슈워제네거 배역)의 임무는 국가 기밀과 관련된 증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존은 리 컬른이라는 인물을 보호하게 되는데 리 컬른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며 그녀가 가진 정보가 유출되면 세계적으로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리 컬른이 존에게 도움을 청하고 존이 증인보호차원에서 리 컬른을 여러 위험을 감내하며 보호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는 이런 사실을 극구 부인함으로써 기업인의 윤리의식의 문제점도 고발하는 내용이다.

28) 만약 담배회사에서 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엄청난 소송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등 이에 따르는 역기능이 엄청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반대를 한다.

2. 관료조직의 음모와 갈등

관료조직의 음모와 갈등을 극적으로 잘 시사해 주는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윌리엄 프리드킨감독이 1999년에 제작 출시한 헤이스 호지 대령 (토미 리 존스 배역), 테리 차일더스(Terry Childers) 대령 (샤뮤엘 잭슨(Samuel L. Jackson) 배역) 등이 출연하는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를 들 수 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동 예멘의 미국대사관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게 되고 미국해병대투입으로 대사관 가족을 구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 와중에 시위대 수십명이 사살당한다. 해병대를 지휘한 차일더스대령은 교전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고, 정부는 외교분쟁을 피하기 위해 대령을 희생시키기로 한다. 이에 앞장서는 자는 국가안보국장직(national security advisor)에 있는 소콜(William Sokal)과 무레인(Mourain) 주 예멘대사이다. 이들은 진실의 조직적 은폐를 위해 주예멘미국대사관 옥상에서 촬영된 사건현장의 비디오테이프를 인멸해버린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은폐와 범죄는 발각되고 결국 소콜은 증거인멸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무레인 역시 대사직을 박탈당하고 위증죄로 기소가 된다. 차일더스대령은 명예제대를 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 영화는 정부와 군대라는 조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조직적 범죄 및 음모유형을 극화하여 잘 나타내주고 있다.

실제 관료제 내에 조직적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해 조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부정이나 부패 또는 부조리와 같은 범죄가 관료제의 상위직 또는 중, 하위직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범죄꼬리를 자르기 위해 이러한 유형의 조직적 범죄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관료제의 병리적 일면을 잘 극화하여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투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로브 라이너감독이 1992년에 제작 출시한 톰 크루즈, 잭 니콜슨, 데미 무어, 케빈 베이컨, 그리고 키퍼 서덜랜드 등이 출연하는 '어 퓨 굿맨'[29] 역시 군(軍)으로 대변되는 관료조직의 음모와 갈등 등으로 표현되는 관료제의 병리적 현상을 예리하게 잘 해부해 내고 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쿠바의 콰타나모 해군기지이다. 이 곳에서 2명의 사병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조안과 군검찰관 다니엘이 사건을 맡게 된다. 수사 초기에 서로의 의견 충돌로 티격대던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유일한 증인이었던 콰타나모 해군기지 부사령관인 마틴슨이 권총자살을 하자 사건이 미궁 속에 빠지지만 추진력을 받은 조안과 다니엘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이 살해 사건이 심한 군기 때문에 일어난 일 이라는 사실에 접근하게 되고 결국 재판대에 올라야 할 대상은 쿠바 기지사령관인 제셉 대령 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셉대령은 출세가도를 달리는 유망한 장교로서 부하들에게 엄격하고 권위적이면서 매우 냉정하고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완벽주의자로 조그마한 허점도 용납할 수 없는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자신의 부대에 그러한 과오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지부사령관인 자신과 군 동기인 마틴슨을 혐오하고 경멸하면서 자신의 부대를 강력히 손아귀에 쥐고 이러한 살해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나 결국 군법회의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그의 심리를 역이용한 다니엘에 의해 자신의 죄상을 스스로 자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출세와 승진, 군의 명예 그리고 조직의 폐쇄성 등과 관련된

29) 이 영화의 원래 원작은 브로드웨이에서 2년 이상 공연되었던 연극으로 어느 해군 부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수사해 나가는 군 검찰관이 사건 뒤에 숨은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군조직의 경직성과 병리 그리고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군문화의 타성을 잘 파헤치고 조직의 장(長)이 포함되는 조직적 범죄의 해악을 사회적으로 고발하려했다는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 볼프강 페터슨감독이 1995년에 제작 출시한 더스틴 호프먼 (샘 대니얼스 역), 르네 루소 (로비 역) 주연의 '아웃브레이크' 역시 관료조직의 음모와 갈등적 상황을 잘 재현해 내고 있다. 미육군 전염병연구소의 대령 샘은 아프리카의 오지로 들어가 의학사상 밝혀진 바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모타바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치사율 100%의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휩쓸어 주민 대다수가 죽어버린 마을을 발견한 샘은 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까지 침투하지 않도록 비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 아내 로비에게 자신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을 알려주며 위험성을 경고하지만, 그의 상관인 빌리 포드 장군과 더니 맥클린탁 장군은 생물학적 무기의 보안문제 때문에 조사와 실험에서 샘을 제외시켜버린다. 한편 화물선박을 통해 검역 없이 들어오게 된 원숭이 한 마리 때문에 캘리포니아 시더 크릭이란 곳에서 모타바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그 변종 바이러스까지 판을 치게 된다. 이러 판국에 샘과 설트는 숙주를 찾아, 그 면역체로 치료제를 만들어 환자들을 치료하려 하지만 맥클린탁 장군은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려 한다. 이러한 갈등 속에 결국 샘은 시더 크릭의 초토화를 저지하고 치료제로 그 지역을 살려낸다. 이 영화는 민감한 군의 생물학적 무기의 보안문제와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적 가치와의 갈등을 샘과 맥클린탁장군을 등장시켜 군의 관료조직을 통해 극화시킴으로써 관료조직의 갈등문제를 현시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가속시키기 위한 조직적 음모의 일면도 제시함으로써 관료조직의 어두운 일면을 보다 우리에게 현실감있게 클로즈업시키고 있다.

마이클 베이감독이 1996년에 제작 출시한 숀 코네리, 니콜라스 케이지, 에드 해리스, 마이클 빈 출연의 '더 록' 역시 이러한 관료조직내의 갈등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영화다. 비뚤어진 애국심의 소유자인 하멜장군과 그가 이끄는 특수 부대원들간의 갈등을 아주 정교하면서도 섬세하게 잘 극화시킨 작품이다. 하멜장군은 미국 특수부대원들이 미국을 위해 희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에게 보상도 없고, 사망자에게 명예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불합리성에 반발하여, 보상금을 달라고 위협을 하면서 정부와 대치하게 된다. 정부측은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존 메이슨의 활약을 통해 무사히 알카트라스 침투에 성공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하멜 일당에게 들키고, 대치되는 국면에 처한다. 하멜장군은 극단적 대치국면에서 명예를 원한 것이지 돈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유혈극을 피하고 싶어하나 그의 부하들은 이에 불복하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저의를 드러낸다. 결국 하멜과 그의 부하들은 서로 반목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과정에서 하멜일당들은 결국 붕괴되고 만다. 하멜의 심리적 변화가 섬세하게 드러나고 부하와의 갈등을 통한 사태진전이 정교하게 연출된다. 결국 이 영화는 조직내의 갈등이 서로가 생각하는 개인적 목적에 의해 얼마나 쉽게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이러한 갈등상황이 재현될 경우 조직목적은 달성될 수 없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이반 라이트먼감독이 1992년에 제작 출시한 케빈 클라인, 시고니 위버 주연의 '데이브' 역시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관료조직의 어두운 일면을 병리적으로 해부해 제시해 주고 있다. 볼티모어에서 작은 임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브는 부자는 아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평범한 미국 시민이다. 그런데 데이브에게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현 대통령과 외모가 아

주 비슷하다는 것이며 바로 이 특이한 점이 데이브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볼티모어를 방문하는 미첼 대통령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잠시 사적이고 은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 데이브를 대역으로 내세우기로 한다. 하지만, 은밀한 계획을 가졌던 대통령이 불상사로 인해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버리자 비서실장 밥의 강요에 의해 졸지에 진짜 대통령이 되어 버린다. 대역을 하면서 데이브의 따뜻한 인간미로 인해 그 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영부인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주변 각료들도 그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 이 영화의 정수(精髓)는 권력층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이익을 위해 몰두 할 수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펼치는 야심과 음모, 그리고 술책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잡한 지를 적나라하게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류의 영화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감독이 1997년에 제작 출시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진 헤크만 출연의 '절대권력'[30] 을 들 수 있다. 이 영화에서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층이 섹스, 살인, 범죄은폐, 음모 등을 기도하면서 추한 정치권력의 어두운 면을 마음껏 발산한다. 어찌되었건 데이브라는 영화는 이러한 면 이외에 관료조직에서 지도자가 가지는 영향력(leadership)이 얼마나 큰 가 하는 것도 잘 표현해 내고 있다. 거짓이긴 하지만 데이브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영부인과의 관계복원 뿐만 아니라 주변 각료들과의 팀워크 등이 제고되는 것 등은 바로 이러한 점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긴급명령'을 꼽을 수 있다. 이 영화는 한 부패한 실업가 (극중에서는 하딩이라는 이름으로 나옴)의 살해사건에서 그와 과거 관련을 짓고 있던 현역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고리로 삼아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생각과 야심에 따라 온당치 않게 정부를 운영하는 것을 소재로 삼고 있다. 이 영화는 레이건대통령을 궁지로 몰아 넣은 이란콘트라스캔들의 연장선을 실제로 접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정보담당처장의 갑작스런 병으로 인해 이 자리를 서리직으로 받은 라이언(해리슨 포드 배역)은 대통령이 마약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내에 마약을 밀매하려는 조직과 이와 연계된 해외커넥션을 붕괴시키려는 의도에 따라 콜롬비아로 나아가 공작을 하게 된다. 이때 대통령은 하딩이 마약자금을 돈세탁한 것이 6억 5천만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회수 할 것과 군사작전을 통해 마약거점을 파괴시키려는 의중을 제임스 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흘리고 이를 간파한 보좌관은 대통령을 대신해 마약거점을 파괴하려는 모종의 음모를 꾸민다. 이를 위해 CIA 리터차장을 포섭한다. 리터차장은 그렇다면 마약제거공작과 관련된 대통령의 작전재가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커터는 이를 만들어 제시한다. 여기에서 대통령과 안보보좌관의 군사행동에 대한 불법을 읽을 수 있고 또한 6억5천만 달러를 회수하여 이를 정치자금화 하려는 그릇된 정치관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출세욕에 불타는 리터는 이것이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군사작전을 펼치고 결과적으로 그릇된 행정권력을 남용하게 된다. 또한 아무리 절대권력을 지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모든 국사는 헌법과 관련 법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공작적 접근을 통해 대통령의 뜻을 이루려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고발을 이 영화는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영화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인너서클(inner circle)안에 있는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대통령 암살음모를 모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암살자들간의 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사태가 꼬이고 결국 대통령을 인질로 하여 돈을 얻어내려는 암살자와 이를 막으려는 암살

30) 볼다치(David Baldacci)의 소설을 각색하여 극화시킨 영화이다.

자간의 갈등과 마찰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과는 보충병(replacement)이라고 자칭하는 암살자에 의해 대통령의 납치 및 인질 그리고 암살의 위기가 모면된다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점은 우선 대통령을 보필하는 측근 참모들의 권력야욕이 더러운 정치와 연결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과 CIA 등의 첩보정보기관들간의 내부 암투와 갈등 그리고 내부의 적이 대통령을 노릴 경우 얼마나 권력핵심이 암살의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다. 이것 역시 정치적 부패와 부도덕성 그리고 이익에 눈이 먼 조직이기주의, 그리고 거대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비효율화 그리고 음모, 공인의 부패상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3. 관료조직의 타성적 업무행태나 또는 조직적 편견

관료조직의 타성적 업무행태나 또는 조직적 편견 등을 극적으로 잘 시사해 주는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로만 폴란스키감독에 의해 1998년에 제작 출시된 해리슨 포드 주연의 '해리슨 포드의 실종'을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경찰이나 관련 기관들의 타성적 업무 행태 나 또는 조직적 편견에 의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리차드가 아내 산드라의 실종을 파리경찰과 미대사관에 신고하지만 이를 단순한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 있을 수 있는 일순간의 갈등에 의한 증발로 이해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 실종과 관련된 엄청난 범죄의 실체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다음 앤드류 데이비스(Andrew Davis)감독이 1993년에 제작 출시한 해리슨 포드(Harrison Ford), 줄리안 무어, 그리고 토미 리 존스(Tommy Lee Jones) 출연의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 역시 범인의 실체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몇 가지의 정황과 물증만으로 주인공을 아내 살인범으로 속단하는 경찰조직의 관료적 행태나 타성 역시 이 영화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관료적 타성이나 조직적 편견에 대한 갈등 등은 고급관료층이나 정치권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예리하게 극화시킨 것이 바로 로져 도날드슨(Roger Donaldson)감독이 제작하고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으로 출연한 '13일' 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실제 1962년 10월에 소련에 의해 촉발된 쿠바사태(Cuban Missile Crisis)시 백악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집단의 갈등과 조직적 편견 등을 아주 예리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구성원들간의 갈등, 특히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hawk group)와 케네디대통령,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법무장관, 그리고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비둘기파(dove group)간의 조직적 편견에 따른 갈등을 잘 묘사해 내고 있다. 군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위기상황을 군의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군부의 이해관계와 위기를 타협과 대화를 통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민간정치인 및 관료집단의 이해관계가 긴장감 있게 격돌하면서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앨리슨(Graham T. Allison)은 이러한 관료적 갈등 속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을 실제 사례로 하여 정책결정모형을 창출해낸 바 있다.[31]

31) Gr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 :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 Little,

4.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그릇된 관료조직과 이러한 관료조직을 악용하는 범죄조직의 리바이던적 역기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그릇된 관료조직과 이러한 관료조직을 악용하는 범죄조직의 리바이던적 역기능을 극적으로 잘 시사해 주는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어윈 윙클러감독에 의해 1995년 제작 출시된 산드라 블록주연의 '네트'를 들 수 있다. 이 영화 역시 정보화시대에 있어 거대한 조직 앞에 선 한 개인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거대한 범죄조직에 의해 모든 개인적 가치가 다 지워진 상태에서 과연 인간이 사회적 실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또한 거대한 경찰 및 관련기관의 컴퓨터와 그 관련 네트워크까지 장악한 범죄조직의 한 개인에 대한 극악한 테러는 특히 모든 개인적 정보가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경종이 되고 있다. 안보나 치안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대 관료조직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시민이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 토니 스코트 (Tony Scott)감독이 1998년에 제작 출시한 윌 스미스(Will Smith), 진 헤크만(Gene Hackman) 등이 출연하는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 역시 거대한 국가정보기관의 가공할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이 잘못 이용될 경우 시민들의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체제 자체가 붕괴되어 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다. 소름이 끼칠 만한 거대한 국가정보조직의 능력 앞에 쫓기는 선량한 시민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앤드류 데이비스(Andrew Davis)감독이 1993년에 제작 출시한 해리슨 포드(Harrison Ford), 줄리안 무어, 그리고 토미 리 존스(Tommy Lee Jones) 출연의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 역시 거대한 관료조직에 의해 누명을 쓰고 쫓기는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살인범으로 몰려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받는 주인공은 초인적인 능력을 보이며 이를 극복해 내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사이 하게만 느껴진다. 거대한 조직 앞에 왜소해만 가는 인간상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5. 대통령직의 유고시나 위기시 상정될 수 있는 관료적 위기관리시스템과 리더십

대통령직(the Presidency)이 국민의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냐 하는 소박한 의문과 대통령유고시의 직무대행에 관련된 내용을 극적으로 잘 시사해 주는 영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볼프강 페터슨감독이 1997년에 제작 출시한 해리슨 포드, 게리 올드먼, 글렌 클로즈 출연의 '에어포스 원' 을 들 수 있다. 미국 대통령 마샬은 러시아의 고관들이 운집한 연설장소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불식을 위한 합동 작전을 치하하는 연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족과 함께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오른다. 그러나 철저한 경비를 갖춘 에어포스 원임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라덱장군(General Radek)의 광신도인 러시아 테러리스트 일당들이 기자로 신분을 위장, 보안검사와 지문감식기를 무사

Brown & Co., 1971)

히 통과하고 대통령 공보비서의 안내로 에어포스 원에 오르게 된다. 미 대통령을 인질로, 체포된 라덱의 석방을 요구하려는 이들은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라덱의 동조자인 비밀경호원 깁스의 배신에 힘입어 공중납치를 실행한다. 테러범은 조종실 문을 깨고 진입 조종사들을 제압하여 비상착륙을 실패하게 만든다. 이러한 소란 중에 대통령은 기민하게 대피, 남들이 잘 모르는 지하통로에 숨지만 영부인과 대통령 딸이 인질로 잡히고 나머지 수행원들은 감금이 된다. 이들 테러리스트들의 요구는 러시아당국에 의하여 감금 되여 있는 라덱을 석방하라는 것이다. 한편 워싱턴은 베네트(Bennett) 부통령 지휘하에 비상 각료회의가 열리고 대통령의 안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부통령 베네트는 전용기가 납치 된 사실을 언론에 발표를 한다. 대통령을 찾지 못한 테러리스트들은 워싱턴과 교신,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비행기안 미로에 피신해 있던 대통령은 수색중인 테러범들과 격투를 벌이고 워싱턴과 교신을 한다. 대통령은 러시아당국에 전화를 하여 라덱의 석방을 요구하고 기내 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라덱의 석방 장면에 테러범들은 환호를 한다. 대통령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테러범들에게 반격을 가하고 결국 테러범을 제거하고 라덱의 석방을 취소케한다.

대통령을 영웅화시키는 이 영화는 두 가지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과연 대통령직은 국가를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을 위한 것인가와 대통령이 테러범들에 의한 납치와 같이 유고된 상황에서의 대통령직무대행에 관련된 문제이다. 첫 번 문제는 이 영화의 내용처럼 대통령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 되어야 할 일은 국가안보를 위해 처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이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책(the Presidency)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를 극화한 것이다. 1967년에 제정된 이 조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면직·사망·사임의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32]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1974년 8월 닉슨(Richard M. Nixon)대통령이 워터게이트불법도청사건에 연루되어 사임을 했을 때 이 규정에 의해 부통령이었던 포드(Gerald R. Ford)가 대통령직을 계승하였다.[33] 만일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대통령 다른 말로 하자면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부통령 및 하원의장에게 그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선언(written declaration)·통보하는 경우 대통령이 같은 방법으로 이를 철회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권한대행(Acting President)으로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다.[34] 실제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대통령은 대장(大腸)에 발생한 종양폴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때 이 규정에 의해 부통령이었던 부시(George H. W. Bush)에게 수술하는 동안에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이양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처럼 대통령이 서면으로 선언·통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통령 및 행정각부의 장관 또는 의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다른 기구대표의 다수가 대통령이 그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상원의 임시대통령 및 하원의장에게 서면으로 선언·통보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35]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36] 이 영화에서는 캐쓰린 부통령 앞으로 각료 전원이 연서한 '대

32)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1항에 명문화되어있다.
33) http://www.whitehouse.gov/history/presidents/gf38.html
34)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3항에 명시되어있다.
35)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4항 전단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4항 후단에서는 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6) http://my.netian.com/~onepark/Lcine/Airforce.htm

통령직무수행불능선언서'(Presidential Incapacity Declaration)가 제출되나 부통령은 대통령과 교신이 될 때까지 서명을 미룬다. 이것 역시 헌법적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대통령직의 공백상태는 어느 국가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영화는 이러한 화두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국가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직의 위기시 상정될 수 있는 관료적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롤랜드 에머리히(Roland Emmerich)감독에 의해 1996년 제작 출시된 제프 골드블럼, 빌 풀먼, 윌 스미스(Will Smith) 출연의 '인디펜던스 데이' 역시 앞서 제기한 첫 번째 화두 즉 위기시에 대통령직(the Presidency)이 국민의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는 것이다. 외계인의 지구침략에 대응하여 직접 전투기조종사로 나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대통령의 영웅적인 모습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이익을 앞세우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대통령상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영화이다. 위기시의 대통령직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과 연관된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6. 분석의 결과 요약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고)

우선 '투캅스'나 '주유소습격사건', '공공의 적', '트레이닝데이', '나쁜 녀석들', '머니트레인', 'LA 컨피덴셜', 그리고 '피스메이커'는 관료조직의 부패와 부조리를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공공의 적'과 '트레이닝데이'는 관료조직의 타성적 업무행태까지 적나라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다음 '인사이더'는 내부고발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관료조직의 부패와 부조리를 제시해 주고 있고 '의뢰인', '펠리칸 브리프', '이레이져'는 증인보호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제를 보여주면서 관료조직의 부패와 부조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는 관료조직의 음모와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관료조직의 타성적 업무행태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어 퓨 굿맨', '아웃브레이크', '더 록' 역시 관료조직의 음모와 갈등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면서 관료조직적 편견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데이브'는 관료조직의 음모와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관료조직의 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대통령 유고시의 위기관리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절대권력', '긴급명령', '리플레이스먼트' 등에서도 유사한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절대권력에서 관료조직적 편견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종', '도망자'에서는 관료조직의 타성적 업무행태를 주로 보여주고 있고 '13일'에서는 관료조직적 편견을 제시해 주고 있으면서 관료조직의 타성적 업무행태와 대통령의 리더십도 부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네트'와 '에니미 오브 더 스테이트'에서는 정보화사회의 그릇된 관료조직과 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관료조직의 부패와 부조리를 부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에어포스원'과 '인디펜던스 데이'에서는 대통령유고시의 위기관리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 각 영화의 내용별 특성분류

영화제목	관료조직부패부조리	내부고발	증인보호프로그램	관료조직음모갈등	관료조직타성적업무행태	관료조직적 편견	정보화사회그릇된 관료조직	대통령유고시 위기관리(리더십)
투캅스	◎							
주유소습격사건	◎							
공공의 적	◎				○			
트레이닝 데이	◎				○			
나쁜 녀석들	◎							
머니트레인	◎							
LA 컨피덴셜	◎							
피스메이커	◎							
인사이더	○	◎						
의뢰인	○		◎					
펠리칸 브리프	○		◎					
이레이저	○		◎					
롤스 오브 인게이지먼트				◎	○			
어 퓨 굿맨				◎		○		
아웃브레이크				◎		○		
더 록				◎		○		
데이브	○			◎				○
절대권력	○			◎		○		○
긴급명령	○			◎				○
리플레이스먼트	○			◎				○
실종					◎			
도망자					◎			
13일					○	◎		○
네트	○						◎	
에니미 오브 더 스테이트	○						◎	
에어포스 원								◎
인디펜던스 데이								◎

V. 결론

비교적 현재 출시 방영된 영화 중 행정현상 특히 관료제적인 현상과 관련을 맺는 영화들 중 상당부분이 주로 관료조직의 부패나 부조리를 고발하거나 그러한 현상을 적나라하게 조명하는 것 그리고 관료조직의 음모와 갈등,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내부고발의 문제와 증인보호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들을 주된 내용의 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관료조직적 편견과 관료조직의 타성적 업무행태를 주제로 보여주는 영화들도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고 특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그릇된 거대 관료제의 시민들에 대한 월권적 행위에 대한 경고와 테러리스트나 외계인과 같은 돌발적 사태로 인해 국가안위가 위협받을 때 대통령의 리더십과 위기관리시스템을 주된 주제로 보

여주는 영화들도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를 통한 관료제의 이해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관료제는 분명히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어지는 것은 영화가 흥행성을 전제로 하여 흥미와 스릴 등을 주된 주제로 편성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특성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관료제의 역기능은 실제 행정현상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치료적 노력이 병행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영화에서 제작자나 시나리오작가 또는 감독들에 의해 상상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사건들 역시 실제 행정현장에서 전문적 직업으로 일상의 업무에 임하고 있는 관료제 구성원들이나 이와 연관을 가지는 많은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도 만들어질 수 있는 사건들 일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주제와 내용이 단지 흥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라는 생각을 버리고 현실성에 입각하여 관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화는 실험적 상황에서 실제의 행정현상을 가상 및 모의실험(simulation)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관료제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의 단계까지 발전적으로 활용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그 만치 실제 행정현상을 통해 지불해야 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적 선택이 아닌가 사료되는 것이다.

사실 영화를 포함하는 예술과 문학들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들이 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인간적인 경험을 잘 표현해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분석의 역사를 더 오래가지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리고 과학과 기예(technology)와의 밀접하고 적절한 접목을 통해 적어도 사람의 근본됨 위에 물질을 개선시키고 인간조건의 이해를 보다 더 넓혀 나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설류의 문학이나 영화 등을 내포하는 예술들을 통해 미래에 조우하게 될 행정현안들의 이해의 지평을 더 넓혀 나가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실성 높고 시의성 있는 처방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구회영. (1998). 『영화에 대하여 알고싶은 두 세 가지 것들』, 서울 : 한울.
루이스 자네티(저) · 김진해(역). (1999). 『영화의 이해』, 서울 : 현암사.
수잔 헤이워드(저) · 이영기(역). (1997). 『영화사전(이론과 비평)』, 서울 : 한나래.
전종섭(저), 윤재풍 · 정희남(역). (2001). 『행정철학』, 서울 : 대영문화사.
조안 홀로우즈 외(저) · 문재철(역). (1999). 『왜 대중영화인가』, 서울 : 한울.
피터 바스킨드. (2001). 『헐리웃 문화혁명』, 서울 : 시각과언어.

Adams, Elsie B. and Frank Marini. (1995). "Regimentation and Rebellion in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Charles T. Goodsell and Nancy Murray (eds.), *Public Administration Illuminated and Inspired by The Arts*, Westport, Connecticut : Praeger Publishers.

Adams, Guy B. (1996). "The Wheel of Fortune : Middle Ages, Not TV", Book Reviews

1,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6, No. 2, (March/April).

Allison, Graham T. (1971). *Essence of Decision :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 Little, Brown & Co.

Cowie, Peter. (2000). *Variety International Film Guide 2002*, Faber & Faber.

Dante, Alighieri. (1949). *L'Inferno*, New York : Penguine Books.

Dewey, John.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 Minton, Balch and Company.

Goodsell, Charles T. and Nancy Murray (eds.). (1995). *Public Administration Illuminated and Inspired by The Arts*, Westport, Connecticut : Praeger Publishers.

Holzer, Marc and Linda G. Slater. (1995). "Insights into Bureaucracy from Film : Visualizing Stereotypes" in Charles T. Goodsell and Nancy Murray (eds.), *Public Administration Illuminated and Inspired by The Arts*, Westport, Connecticut : Praeger Publishers.

http://my.netian.com/~onepark/Lcine/Airforce.htm

http://www.whitehouse.gov/history/presidents/gf38.html

Kroll, Morton. (1995). "The Administrator-Viewer Reviewed, Through Film", Charles T. Goodsell and Nancy Murray (eds.), *Public Administration Illuminated and Inspired by The Arts*, Westport, Connecticut : Praeger Publishers.

Kupfer, Joseph H. (1983). *Experience as Art : Aesthetics in Everyday Life*, Albany, 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Mast, Gerald, and Bruce F. Kawin. (1999). *A Short History of the Movies*, Prentice Hall.

Reinhardt, Mark. (1997). *Art of Being Free*,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Waldo, Dwight. (1956). *Perspectives on Administration*, University, Alabama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Wolfe, Humbert. (1924). "Some Public Servants in Fiction," *Public Administration*, Vol. 2, (January).